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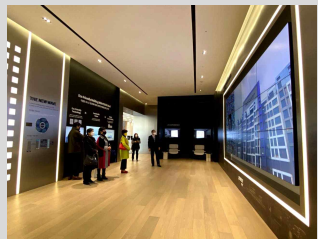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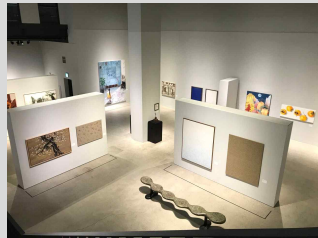
2026.6
75

주소:서울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50-311 전화:02-555-1946 / 010-5235-1946 메일:snuarta@naver.com 밴드: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제22대(2019-2021)

제23대(2021-2023)

제24대(2023-2026)



회장연임 인사말

다시 붓을 들며.....

그림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다시 한 획을 요구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은 동창회를 운영했다기보다 함께 한 장의 긴 그림을 그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재능과 시간을 기부하고, 누군가는 기금을 보태고, 누군가는 작품을 내어주고, 누군가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전시장에 와 주었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빈 캔버스 같던 공간에 색이 쌓이고, 서사가 더해져서 마침내 하나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다시 또 믿고 맡겨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보다 먼저 책임을 생각합니다. 예술가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반복입니다. 어제의 성공을 답습하는 순간, 창조는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임기를 연장과 반복의 시간이 아니라 변주의 시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동창회는 과거를 추억하는 장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스케치하는 아틀리에여야 합니다. 그곳은 선배들의 지혜와 후배들의 실험이 만나고, 회화와 조소, 공예와 디자인과 미디어가 만나고, 예술과 사회가 만나고, 나와 세계가 만나는 열린 마당입니다. 우리는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지만 각자의 궤도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언어를 씌어 탐색해온 사람들입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새 작품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아직 마르지 않은 물감처럼, 아직 제목을 붙이지 않은 작품처럼, 우리 동창회의 가장 좋은 장면은 어쩌면 아직 오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좋은 장면을 암중모색하며 직무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과 함께 그 가능성의 방향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여름의 문턱에서

제25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회장 권영걸

2026 S-미술아카데미 여름학기 진행

본회가 주최하고 (사)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는 '2026 S-미술아카데미 여름 학기'가 오는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후원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회화와 드로잉, 디지털아트, 전통회화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실기 중심의 전문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S-미술아카데미는 매 학기 모교 출신 작가와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수준 높은 예술 교육을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단순 취미 교육을 넘어 개인의 표현 역량과 창작 감각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술 입문자부터 심화 창작을 원하는 수강생까지 폭넓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여름학기 역시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실기와 이론, 작품 제작과 발표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수업을 선보인다.

이번 학기에는 ▲기초소묘드로잉: 어반드로잉·인물창작(강사 김호준) ▲자유크로키: 누드 ▲프리페인팅-유화·아크릴화 고급과정(강사 조명식) ▲아크릴화-구상에서 추상까지(강사 정일영) ▲현대수묵화: 풍경·인물·정물·문인화창작(강사 조래원) ▲사군자: 여백과 묵향의 힐링(강사 변영혜) ▲태블릿PC 디지털페인팅-기초부터 작품제작까지(강사 이영훈) ▲수채화 초·중·고급(강사 박혜령) ▲원데이클래스 프레스코·석회벽화 템페라(강사 선우향) 등 총 9개 강좌가 마련됐다. S-미술아카데미의 가장 큰 특징은 수강생 중심의 개별 지도 방식이다. 모든 강좌는 강사의 시연과 설명에 그치지 않고, 수강생의 수준과 성향에 맞춘 1:1 피드백을 병행한다. 또한 실기 수업과 함께 미술사적 이해, 화면 구성, 재료 활용 등 이론 교육을 함께 진행해 보다 깊이 있는 창작 경험을 제공한다. 강좌별 결과물 발표와 리뷰 시간 역시 마련돼 있어 수강생들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점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아울러 디지털 드로잉과 현대수묵화, 프레스코 템페라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커리큘럼은 최근 미술교육의 흐름을 반영한다. S-미술아카데미는 단순히 그림을 배우는 공간을 넘어, 각자의 삶과 감각을 예술로 표현하고 서로의 작업을 나누는 창작 공동체를 지향하며, 이번 여름학기 역시 다양한 세대와 배경의 수강생들이 예술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얻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강좌안내: 서울대미대동창회 홈페이지: <https://www.snuarta.or.kr/>
수강문의: 02-877-8065(평일10~17시) 문자신청: 010-8605-8065



세렌디피티

본회가 기획한 전시 'Serendipity'가 지난 6월 3일부터 8일까지 서울 체부동 갤러리B에서 초대전으로 개최됐다. 2022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이번 전시에는 박도현(디자인16), 김정아(서양17), 이망고(서양17), 배서연(22서양), 김윤이(23서양), 김하늘(23동양), 윤정윤(24조소), 지예원(24조소) 동문 등 9명이 참여했으며, 모교 및 대학원 졸업생은 물론 재학생까지 함께해 세대 간 예술적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전시에서는 회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작품세계가 소개됐으며, 철조 조각 작품도 함께 선보여 매체의 확장성과 조형적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6월 3일 열린 전시 오프닝 행사에는 갤러리B 심혜진 대표를 비롯해 참여 작가와 동문들이 참석해 전시 개최를 축하했다.

회장동정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식

본회 회장 권영걸(69응미) 세종연구원장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과 지난 5월 15일 세종연구원에서 세종시 인력양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를 공동 활용해 지역 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사업을 활성화하고, 직업훈련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의 날 기념행사 참석

지난 6월 5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세종시가 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세종시탄소중립지원센터 주관으로 '제7차 탄소중립 전환포럼'도 함께 열렸다.

생성형 AI 기초교육 운영

권영걸 세종연구원장은 세종연구원이 운영하는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소담동 정보화교육장에서 지난 6월 12일과 오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서 '생성형 AI 아카데미' 기초과정을 운영한다. 권원장은 "생성형 AI가 빠르게 일상 속으로 확산되는 만큼 시민 누구나 AI를 쉽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맞춤형 디지털AI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권영걸 세종연구원장은 오는 7월 31일부터 학습과 취업, 대인관계 등에서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선별검사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권원장은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적절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도 사업내역

사무소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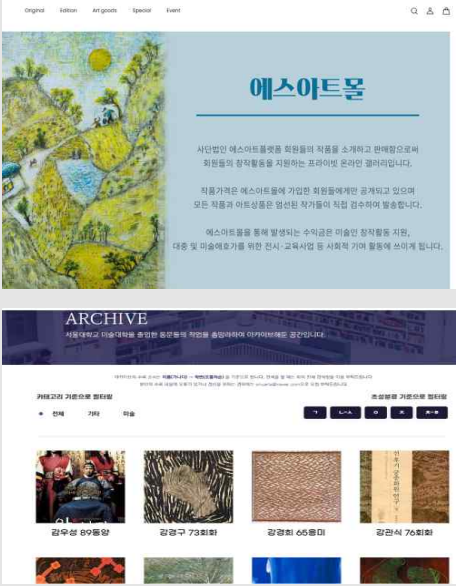
서울대오피스(동창회)
서울대학교 50동311
010-5235-1946



선릉오피스(법인)
역삼동아남타워1323
010-8605-8065



인사동오피스(아카데미)
인사동백악미술관2층
010-8579-7654



▶온라인사업 = 온라인 갤러리 S-ARTMALL 운영 및 서울대충동창회 온라인몰 몰스누아에 입점 운영

▶아카이브 운영=홈페이지에 본회 회원들의 작품 및 경력 등 아카이브 운영. 현재 1000여명 수록 지속적으로 자료 추가 및 수정작업

회의

- ▶정기감사 실시=5월 8일 본회 선릉오피스에서 본회 및 본회산하 사단법인 에스아트플랫폼에 대한 2024년도 사업 및 회계내역 정기감사 실시
- ▶정기총회 개최=5월 14일 세종시 세종연구원 회의실에서 정기총회 개최. 2024년도 사업 및 회계 인준, 2025년도 사업계획 인준

행사 및 사업



▶백제미술여행-백제의 숨결을 따라=6월 26-27일 백제의 유적 및 박물관 탐방을 통해 백제 미술에 대한 이해 증진과 동문간의 친목 도모. 충청남도 공주, 부여 일대 여행



▶동창회장상 시상=7월 제21회 대한민국청소년미술대전 최우수상(서울대 미대동창회장상) 시상.

모교지원



▶MT 간식지원=모교 재학생과 교수진이 참여하는 각과별 스케치여행 후원. 4월 MT 참가자 전원에게 간식(호두과자) 지원. 서울대미대 58동기회에서 후원



▶동아리 미대국회 기자재 후원=모교 소속 연극 동아리 공연 준비에 필요한 기자재 후원. 공구 및 포그머신 기증



▶2025 베리타스미술상 시상=12월 모교 졸업작품 우수자(전공별 총 8인)를 선정해 베리타스미술상(동창회장상)을 시상. 상장 및 부상(베리타스미술상 개최) 수여



- ▶장학금 수여=연 2회(1, 2학기) 학생회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각 과 회장에게 지급
- ▶새내기배움터 경품후원=모교 신입생들의 교류의 장, 대학 생활의 첫 시작 행사지원(1등 애플워치, 2등 에어팟, 3등 마샬스피커)

2025년도 사업내역

전시사업



▶SNU한국화대전=3월 14일부터 20일까지 백악미술관에서 개최. 서울대 출신 원로부터 청년작가가 참여해 한국화의 확장성과 미래 가능성 제시



▶S-미술아카데미전=수강생들의 1년간의 창작 성과와 예술적 성장을 선보이는 전시로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백악미술관에서 개최



▶(봄)소확행아트컬렉션=창작활동지원 및 대중에게 적은 투자로 작품소장 기회를 제공하는 판매전.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한전갤러리에서 개최



▶숨은예술가들=미술전공을 하지 않았으나 작품활동을 하고있는 서울대 동문들을 위한 전시로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한전갤러리에서 개최



▶SNU VILLA D'ART=4월 17일부터 25일까지 한전갤러리에서 개최. 본회 회원전으로 격년제로 개최



▶베리타스미술상전=모교 우수 졸업작품에 수여하는 베리타스미술상의 수상작가전으로 4월 17일부터 25일까지 한전 갤러리에서 개최



▶세렌디피티=본회 간사(보)들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전시로 본회가 기획하여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갤러리B에서 개최



▶(봄)마이컬렉션=서울대학교 동문들의 소장작품전으로 5월 29일부터 6월 6일까지 한전갤러리에서 개최. 대중에게 서울대 동문의 소장작을 소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판매 전시



▶시간의 조각
회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한 초대전시.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아트스페이스 쉼리에서 2인전 개최



▶(여름)소확행아트컬렉션 개최
창작활동지원 및 대중에게 적은 투자로 작품소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판매목적 전시로 BC카드 후원으로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을지트윈타워에서 개최



▶(가을)마이컬렉션 개최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소장한 작품들을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적은 투자로 소장의 기회 제공.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한전 갤러리에서 개최



▶오픈아트페어
동문나눔한마당 부대행사로 오픈아트페어를 10월 19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버들골 풍산마당에서 개최. 동문들의 작품 전시 및 판매



▶S-ART BOOTH SHOW
기성 작가와 신진 작가들의 개인전으로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개별부스 형식으로 동시 개최. 6명의 부스개인전과 3명의 특별전



▶이시동시-백제미술여행전
본회 주최 백제미술여행에서의 체험을 각자의 예술 언어로 표현한 전시로 12월 2일부터 27일까지 갤러리 Pal에서 개최

홍보



▶SNS계정 운영=본회 소식 및 동문들의 경조사, 전시, 동정 등 근황을 알림(홈페이지/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운영)



▶E-NEWS 발간
본회 홍보 및 동문들과의 소통을 위해 연 12회 매월 15일 온라인 소식지 발간. 매월 동문 및 관련인 4500여명에게 메일로 발송

모교소식



정의철 학장 ‘DESIGN 2026’ 학회 좌장

모교 정의철 학장(88산다)은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크로아티아 차트타트에서 진행된 ‘DESIGN 2026’에 좌장으로 초청받아 학회 세션을 진행했다. 해당 학회는 1981년 설립된 ‘Design Society’가 주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격년 개최 및 낮은 게재율, 엄격한 double-blind peer review를 통해 높은 학술적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발표 논문은 Cambridge University Press를 통해 출판 및 Scopus에 등재되는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연구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정 학장은 해당 학회에서 ‘Advanced Visualisation and Immersive Technologies in Design’ 세션을 진행했다.

동양화과 교직원 수묵화반 개설

모교 동양화과는 서울대학교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3학기 수묵화강좌 ‘대나무’ 과정을 오는 7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12주간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대나무 수묵 표현법을 중심으로 수묵화 기초과정, 꽃·동물·풍경 그리기, 수묵화 이론 등을 배우는 실기 중심 프로그램이다. 수업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서울대학교 예술복합연구동(74동) 407호 전통회화실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수강생은 Zo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강의는 임계 김성우(87동양) 동문이 맡는다. 신규 수강생에게는 김 동문이 집필한 서울대학교 수묵화강좌 전용 교재 『수묵대나무(墨竹)』 PDF 판본이 제공된다. 모집 인원은 현장 수강 15명, 온라인 수강 25명이며, 수강료는 각각 20만원과 18만원이다. 수강 신청은 6월 30일까지 담당 조교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관계자는 “묵향으로 자연을 표현하는 수묵화의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전통 회화의 정신과 표현 기법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기초조형학회 춘계 국제학술대회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울대학교에서 기초조형학회 춘계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다. 해당 학회는 서울대학교와 모교 산하기관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10-10 Initiativer가 주관하고 한국기초조형학회가 주최했다. 기조강연에는 모교에서 초청한 Mindy Carter연사가 참여했다. 5월 30일에는 정의철 학장 연구실이 공동 진행한 워크숍 감정 이후의 조형: 고흥자 정서적 삶의 장면 속 로봇 상상하기가 진행됐다.



2025 후기졸업전 및 석·박사 학위청구전

모교 2025 후기졸업전 및 석·박사 학위청구전이 지난 6월 4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개최된다. 전시의 시작은 동양화과가 열었다. 동양화과 졸업전시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대학교 220동 우석홀에서 개최되었다. 학생들은 전통 동양화의 재료와 기법을 바탕으로 현대적 해석과 실험적 시도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어 서양화과 졸업전시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회화의 다양한 매체와 표현 방식을 활용한 작품들을 통해 동시대 미술에 대한 학생들의 시각과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이어 디자인과 및 영상매체예술은 오는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조소과 및 공예과는 오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시가 진행된다.



2026학년도 1학기 과제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이 2026학년도 1학기 과제전을 개최한다. 동양화과 과제전은 6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0동, 51동, 52동에서 개최된다. 이어 서양화과 과제전이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6월 말에는 조소과, 공예과, 영상매체예술전공의 전시가 동시에 열린다. 세 전시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50동, 51동, 52동 및 220동 지하 전시공간에서 개최된다. 조소과는 입체와 공간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한 조각 및 설치 작품을 선보이며, 공예과는 금속, 도자, 섬유, 목공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영상매체예술전공은 영상, 사운드, 미디어 설치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작업을 통해 현대 예술의 확장된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디자인과 과제전은 74동에서 총 6차에 걸쳐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1차 전시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2차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3차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4차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5차는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6차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디자인을 통해 사회와 기술,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의식과 창의적 해결 방안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한 미술대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입생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1학년 과제전도 마련된다. 1학년 과제전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50동, 51동, 52동 및 220동 지하에서 개최된다. 기초 조형 교육 과정에서 제작된 다양한 과제 작품들을 통해 학생들의 실험정신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소식



서울대학교 '빌드 어 클로 @ SNU'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는 지난 6월 8일 해동첨단공학관에서 '빌드 어 클로(Build-a-Claw) @ SNU' 행사를 진행했다. 해당 행사는 엔비디아와 한국 개발자 커뮤니티가 서울대 학생과 개발자,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마련한 인공지능 에이전트 체험 행사다.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오픈클로(OpenClaw) 등을 활용해 자율 AI 에이전트를 직접 설치하고 구현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데모 부스에서는 AI 에이전트의 작동 원리와 활용 방식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학생들은 엔비디아 전문가들과 기술 적용 사례와 진로, 프로젝트 협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젠슨 황 엔비디아(NVIDIA) 최고경영자(CEO)는 약 25분간 진행된 라이트닝 토크를 통해 AI시대의 가능성과 혁신가 정신을 강조했다. 젠슨 황은 AI 기술이 산업과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AI시대를 맞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 산업과 클라우드·모바일 기술, 기계공학과 제조업, AI 역량을 동시에 뛰어나게 갖춘 나라는 많지 않다"라며 "이 모든 것을 갖춘 한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이 부럽다"라고 덧붙였다. 농담을 섞어가며 발언을 이어가던 젠슨 황은 "요즘엔 K가 붙으면 큰 인기를 끈다"라며 "나를 K-젠슨이라 불러달라"라고 말해 학생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발언 후 유홍림 총장을 만난 젠슨 황은 서울대 점퍼와 규장각 고지도를 전달받았으며, 점퍼를 착용한 채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2026년 명예교수 초청 간담회

서울대학교는 지난 5월 14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명예교수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서울대는 매년 평생을 학문연구와 학교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명예교수님들을 모시고 그간의 학교 현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고자 매년 명예교수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명예교수와 본부 보직자, 학(원)장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유 총장은 "올해로 개교 80주년을 맞는 서울대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왔다"며, "지금의 서울대 위상은 명예교수님들의 헌신 덕분이다"고 명예교수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건너고 있는 지금 서울대학교가 시대 변화를 이끌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교 100주년을 향해 가는 서울대학교의 노력에 명예교수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독일 U15 대표단 접견

서울대학교는 지난 5월 20일 행정관 4층 대회의실에서 독일 연구중심대학 협의체인 German U15 대표단을 접견하였다. 이번 방문에는 협의체 의장인 미하엘 호흐(Michael Hoch) 본 대학교(University of Bonn) 총장을 비롯하여 라이프치히, 튀빙겐, 프랑크푸르트, 괴팅겐, 하이델베르크, 뮌헨, 뷔르츠부르크, 윈스터 등 독일 주요 연구중심대학 총장단과 주한 독일대사관·독일학술교류처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하였다.

서울대학교 다양성 위원회 10주년 기념포럼

서울대학교는 지난 5월 18일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10주년 기념포럼을 진행했다. '다양성, 대학을 다시 묻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성이 제도나 숫자를 넘어 학문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 논의됐다. 다양성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은 포럼을 시작하며 "당연함을 흔들고 묻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포럼은 △다양성환경조사 결과 발표 △강연 △라운드테이블 △다양성 파이어니어즈 인턴십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봄 축제 'LUMINES'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총학생회 산하기구 축제기획단 '축제하는 사람들' 주관으로 2026년 서울대학교 봄축제 'LUMINES'가 개최됐다. 축제 1일 차와 2일 차에는 '축제하는 사람들' 행사 부스를 포함한 학생 부스들이 잔디광장에 마련됐다. 2일 차에는 연예인 공연과 '랜덤 플레이 댄스' 행사가 진행되었다. 3일 차에는 '사운드 오브 뮤직'과 폐막제가 진행됐다.

서울대미술관 20주기념 아카이브전 '안과 밖'



서울대학교미술관(관장 김형숙)은 지난 4월 17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서울대학교미술관 20주년 기념 아카이브 전시 '안과 밖'을 개최한다. 서울대학교미술관은 국내 최초의 대학미술관으로, 1995년 서울대학교 5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준비가 시작됐으며, 삼성문화재단의 기증 협찬 아래 램 쿨하스의 설계로 2005년 7월 완공됐다. 2006년 개관 이후 기획전시 총 112회,

주제전 56회, 국제교류전 29회, 소장품전 11회, 작가조망전 16회가 개최되며 대학과 지역사회를 잇는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성장해 왔다. 지난 2월 제9대 관장으로 취임한 김형숙 관장은 전시 서문을 통해 "서울대학교미술관은 공간의 안과 밖, 그리고 미술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보나 학예사는 "이번 전시는 하나의 미술관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협업이 필요한지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동시에 미술이 내부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확장되어 왔다는 점을, 소장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했다"라고 전했다.

총동창회소식



총동창회 간담회

총동창회(회장 이준식)는 지난 4월 30일 저녁 6시 서울대 총장 공관에서 단과대학·직능·특별과정 동창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준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총동창회와 단과대학 동창회는 함께 발전해 온 동반자”라고 강조하며 이날 자리의 의미를 짚었다. 이 회장은 특히 “총동창회가 먼저 단과대학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앞으로 행사 지원과 교류 확대에 있어 총동창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학교와 동창회는 항상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홍림 총장도 “서울대 발전은 동창회와 함께 가는 것”이라며 화답했다. 유 총장은 “개교 80주년을 맞은 올해, 국내외 대전환의 시기에 서울대가 사회를 위해 다시 한번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엔비디아, 오픈AI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서울대를 찾는 이유는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대학으로서의 강점 때문”이라며 “그 강점을 최대한 살려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들이 돌아가며 소속 동창회의 현황과 활동 방향을 소개하고, 각자 건배사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하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제언과 공감의 목소리가 오갔다.



개교 80주년 기념 음악회

총동창회(회장 이준식)가 주최하고 음악대학동창회(회장 임재완)가 주관한 ‘서울대학교 개교 80주년 기념음악회’가 5월 14일 밤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동문 가족 1200여 명이 객석을 빈틈없이 채운 이날 음악회는 ‘무한한 상상, 담대한 도전, 새로운 미래’라는 서울대 80주년 표어 아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화합과 연대의 장으로 펼쳐졌다. 1946년 개교 이래 80년의 역사를 써온 서울대가 모두 함께하는 음악으로 그 여정을 기념했다. 이준식 총동창회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모교가 걸어온 지난 80년의 찬란한 여정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희망찬 미래를 음악으로 형상화하여 동문과 가족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유홍림 총장은 “1946년 개교 이래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해방 이후 폐허와 가난 속에서 출발한 우리나라가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까지 수많은 동문들의 헌신이 있었다”면서 “이번 음악회가 개교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됐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번 음악회의 가장 큰 특징은 연주 주체 전원이 서울대 음대 동문이었다는 점이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독창자와 지휘자까지 200여 명의 동문 음악가가 무대를 채웠다. 서울대 음대를 거쳐 46년째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KCO)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민명 명예교수가 음악감독과 제1 바이올린 주자로 이날 무대를 이끌었다.



최규팔 수석부회장

이대성 상임부회장

송우엽 사무총장

김광덕 편집인

제31대 서울대총동창회 회장단 구성 완료

총동창회는 제31대 서울대총동창회 회장단 구성을 지난 5월 초에 완료했다. 이준식 회장은 수석부회장에 최규팔(70제약) 특허법인 한성 대표변리사, 상임부회장에 이대성(75기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산업기술연구소 교수를 선임했다. 감사에는 박수근(73경영) 서울대 경영대학원 명예교수와 김영갑(74법학) 서광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재선임됐다. 송우엽(79체육교육) 총동창회 사무총장은 연임돼 31대 회장단 체제에서도 동창회 운영을 총괄한다. 한편 총동창신문 편집인에는 김광덕(82정치) 전 서울경제 부사장 겸 논설실장을 선임하고, 주요 일간지 현역 편집·논설 간부 21명을 총동창신문 논설위원으로 위촉했다.

동문바둑축제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서울대 개교 80주년 기념 동문바둑 축제’가 2026년 7월 5일(일) 9시~18시 서울대 관악캠퍼스 농생대 제3식당(75-1동)에서 열린다. 참가인원은 동문, 재학생, 교직원 등 약 200명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모처럼 미술대학 출신 홍순모(68조소/기원2급), 이길원(69회화/타이젠 5단, 한계임 8단), 김종선(74회화/오로7단) 동문 등 3인이 단체팀명 ‘SNU미대기우회(대표 김종선)’로 단체전에 참가할 예정이다.

4월 장학금 기부 소식

지난 4월 48명의 동문이 총 75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해 2026년 누계 기부액은 7억 3300만원을 기록했다. 이창구(56수학교육) 동문은 스승의 날을 맞아 5000만원을 쾌척해 중학교 시절 은사인 이복남 선생님의 이름으로 특지 장학회를 설립했다. 이외 4월 주요 기부자는 유종석(78기계) 동문이 1000만원, 박종철(61물리) 동문은 500만원, 이기용(68독어교육)·김동호(62불문)·변종오(77요업)·손경희(HPM 39기)·유재한(73경제)·권호진(74토목) 동문은 각각 100만원씩을 냈다. 그 밖에 우희명(GLP 37기) 동문 50만원, 이승훈(80법학)·이용철(67농화학)·이창건(49전기) 동문 각 30만원 등 다수의 동문이 꾸준히 동참하고 있다. 장기 약정 동문 중 김동호(62불문) 동문은 3억원을 약정하고 현재까지 2억 7800만원을, 김기선(63독문) 동문은 2670만원을 약정해 2590만원을, 박주미(81치의학) 동문은 1200만원 약정에 1080만원을 납부했다.

7월 수요특강

- 일 시 : 7월 8일(수) 오전 7시 30분
- 장 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 강 연 자 : 김종영 한국수사학회 명예회장
- 주 제 : 고전수사학으로 배우는 설득과 소통의 원리
- 참 가 비 : 2만원 (간단한 간식 및 생수 제공)

【신청 방법】

○ 참가신청 : 행사명,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후 참가비(2만원) 입금

- 문자 1599-7704(전화수신불가), 이메일 member@snu.or.kr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 입금 시 행사명과 성함을 함께 기재 (예_홍길동7월수요)

※ 6월 30일(화) 이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참가비 환불이 불가

※ 평생회비 또는 2026년도 회비를 납부회원에 한해 참가 신청 가능

○ 문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대표 전화 02-702-2233

회비납부 안내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회원		5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 · 학번 · 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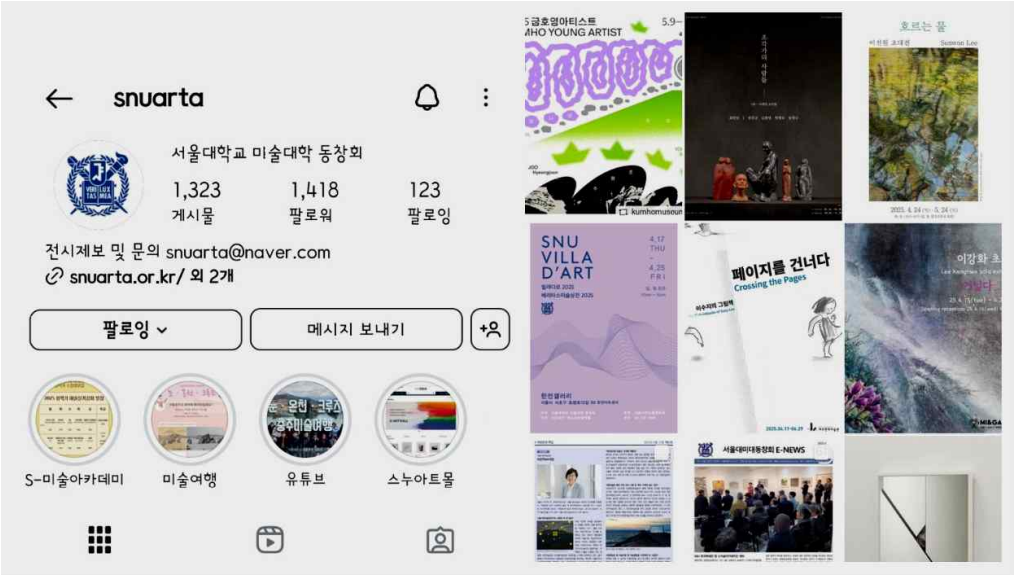
- 회 장 회비 권영걸(69응미)
- 부회장회비 김춘수(77회화) 나성숙(71응미) 손희옥(68회화) 이부연(71응미) 박혜령(74회화) 이성심(82응미) 이진민(83서양) 이민주(76회화)
- 이 사 회비 안규철(73조소) 양세혁(89조소) 안말환(76회화) 이정연(71회화) 이종숙(82회화) 장준혁(90조소) 추명희(70조소)
- 평 생 회비 김희자(66회화)
- 광고후원금 화성문화관광재단(대표 안필연/80조소)=50만원
68동기회=30만원



축하기 · 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연회비 납부 회원에 한해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문자 : 010-5235-1946

소식을 보내주세요~

본회 소식지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15일 발행되어 동문 및 관련 단체 등 4500여명에게 메일로 전달되며, 휴대폰이나 본회 인스타그램 · 네이버 밴드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 및 행사 · 인사 · 수상 · 개업 · 결혼 · 부고 등 동정을 메일(snuarta@naver.com)이나 문자(010-5235-1946)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동문 사업체를 소개해 선 후배간 도움을 나누고 있으니 사업체 소개 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NS로 직접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 ·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광고후원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 · 단체 · 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말일
- 발 행 일 : 매월 15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S-미술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9길16 백악미술관 2층

***문의 02-877-8065**
* 평일 10~17시

2026 여름학기 미술실기강좌 시간표 6.8 ~ 8.31 *공휴일 휴강 (보강 진행)

월	화	수	목	금	
기초소묘드로잉 어반드로잉 인물창작 프리페인팅 유화·아크릴화 고급과정 현대 수묵화 풍경·인물·정물 ·문인화 창작 태블릿PC 디지털 페인팅 기초부터 작품제작까지					ONE DAY CLASS 7.25(토) 10:00-17:00 프레스코 석회벽화 템페라 선우향
오전 10:00 - 13:00 김호준	조명식	조래원	이영훈		
오후 14:00 - 17:00 강사 없음	아크릴화 구상에서 추상까지 정일영	사군자 여백과 묵향의 힐링 변영혜	수채화 초·중·고급 박혜령		

접수 기간
수시 신청

접수 방법
접수 | 010-8605-8065 문자
입금 | 301-0252-4434-51농협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수강 정원
강좌별 15명
* 신청순 접수 / 복수신청 가능
* 10명 미만 폐강

수강료
수강료 36만원 (12회)
자유크로키 20만원 (10회)
* 모델료 별도
프레스코 15만원 (1회)
* 재료비 포함
그림에세이 24만원 (8회 7.1~8.19)

강좌/강사/환불 안내 홈페이지 참조
(snuarta.or.kr S-미술아카데미)

주최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주관 (사)에스아트플랫폼 후원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유럽 중세 성당에 작품 설치 김인중(59회화)

김인중 동문의 스테인드글라스 신작들이 천 년 역사를 가진 벨기에와 프랑스 중세 성당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그의 작품은 동양적 필치가 남긴 여백 사이로 빛이 흐르며 이는 유럽 중세 건축물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딕 건축의 정수로 꼽히는 샤르트르 대성당의 한 벽면에도 그의 작품이 자리하고 있다. 김동문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삶이 끝나는 날까지



작품 활동을 함으로써 노인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하는 게 큰 희망이고 보람이 있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프랑스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작가이자 사제이다. 스위스 후리부르그대학 및 가톨릭 대학에서 수학했으며, 프랑스를 중심으로 파리, 런던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 및 국제 전시회에 참여했다. 파리, 샤르트르 등 전 세계 성당의 유리화 작업을 수행했으며, '빛의 화가'로 알려져 있다.

안평안건 예술상 선정 이길원(69회화)

이길원 동문이 2026년 안평안건미술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사단법인 안평안건현창사업회는 2026년 안평안건미술상 수상자로 원로 한국화가인 이동문을 제8회 안평안건창작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49년생인 이동문은 추계예술대학교 미술학부 명예교수로, 한국화의 전통성과 현대적 조형성을 아우르는 작품 세계를 꾸준히 구축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수묵의 깊이와 실험적 표현을 결합한 작업은 동시대 한국화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해왔다는



평이다. 이번 수상에는 상금 500만 원과 함께 기획초대전 지원이 포함된다. 시상식은 2026년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한벽원미술관에서 열리는 '제17회 안평안건특별전(꿈 몽유도원)' 개막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1회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다수의 기획전 및 초대에 참여했다.

한성대 대외협력부총장에 임명 김지현(81응미)

김지현 동문이 한성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에 임명됐다. 대외협력부총장은 한성대학교에서 신설된 보직으로 기존 교학부총장 단일 체제에서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 2인 체제로 확대 개편되어 신설되었다. 특히 이 직위는 외국인 유학생 증가와 국제교류협력 확대에 대응하고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김동문은 대외협력부총장으로서 대외 기관 협력, 글로벌 사업 및 발전기금 관련 업무 등 대학의 대외적 역량 강화를



주도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 학사 및 동대학원 산업미술과, 미국 이스턴미시간대 대학원 시각디자인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ANBD 한국대표 및 사무총장 역임,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연구 교수, 전 한국기초조형학회 회장, 전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제3대 회장, 현 아시아 예술디자인 연합협회(ANBD) 이사장, 현 한성대학교 ICT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트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평화, 예술로 잇다' 전시 기획 손은신(82산디)

케이메세나네트워크 이사장 손은신 동문이 '평화, 예술로 잇다' 전시를 주관하여 기획했다. 전시는 한국 현대미술 거장들의 평화 기원 특별전으로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오는 6월 25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이념과 정치적 접근을 넘어 예술 고유의 언어를 통해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로 다른 기억과 경험을 감각과 정서로 연결하며 공감과 소통의 새로운 접점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시에는 김병기, 변시지, 박서보, 신학철, 이강소, 민정기, 서용선, 김춘수, 권여현, 허진, 권용래,



공성훈, 안성규, 김상경, 윤정미, 김남표, 박종호, 이은경 등 20여 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 주최하고 케이메세나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손동문은 "예술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향후 남북 교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손동문은 모교 산업디자인과 학사를 졸업했다. 2015년 (사)케이메세나네트워크를 설립하고 평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케이메세나네트워크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우현 고유섭 추모문화예술제 김선학(83응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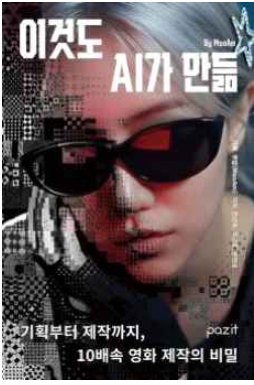
우현전문예술단체 대표 김선학 동문이 오는 6월 20일 인천 중구 용동 큰우물광장에서 '82주기 우현 고유섭 추모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우현전문예술단체는 지난 6년간 한국 근대미술사학의 선구자이자 인천의 대표적 문화예술인인 우현 고유섭 선생의 추모제를 이어오며 지역 문화예술계의 대표적인 선양사업으로 발전시켜 왔다. 올해는 지원사업 선정으로 행사 규모가 확대돼 공연과 추모식을 결합한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제로 진행된다. 식전 공연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색소폰 연주와 무용 공연, 이든양상을 남성중창단의 무대, 행위예술가 신종택의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우현 동상을 제작한 고정수 조각가



의 작품도 현장에 전시된다. 추모식에서는 우현 고유섭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하고 고인의 학문 정신과 문화유산 사랑을 기리는 시간을 갖는다. 2025 우현상 수상자 오상일 작가의 초대전이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우현문갤러리에서 개최된다. 김동문은 "올해 추모 문화예술제는 예년보다 프로그램 구성이 더욱 풍성하고 내실 있게 마련됐다"며 "오는 7월 '젊은작가 응원 프로젝트', 9월 '읽건쓰로 탐구하는 인천 문화유산 어린이미술대회', '인천국제행위예술제' 등을 통해 우현 고유섭 선생의 정신과 미학을 인천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것도 AI가 만듦' 출간 현해리(08동양)

현해리 동문이 대표로 있는 콘텐츠 제작사 무암(MooAm)이 AI 영상 제작 지침서 '이것도 AI가 만듦'을 기획, 출간했다. 무암은 AI 기반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칸 시리즈(Canneseries) 공식 초청을 3년 연속 달성하고 ICT 기금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이어왔다. 이번 책은 무암의 실제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AI와 실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콘텐츠 제작 방법론을 체계화한 실무형 가이드로 기획됐다. 영상 제작, 법률, 저널리즘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생성형 AI 시대의 콘텐츠 제작 방향을 제시한다. 한편 현



동문은 모교 동양학과 졸업 후 MBN 공채 1기 PD로 입사해 시사교양 프로를 만들었고 대기업에서 재직하다 2020년 프로덕션을 설립했다. AI 단편영화 '더 룩 비지터' 및 다양한 웹 드라마를 연출했다. 그의 제작사 '무암'에는 '화산 폭발로 생성된 현무암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현재는 K-콘텐츠와 IP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크리에이티브 팀이며 약 10인 규모로 총 22개의 오리지널 IP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콘텐츠 제작도 하고 있다.

동문 인터뷰

김명희(68회화)

본지 편집팀은 뉴욕과 춘천을 오가며 사라진 마을과 이동의 삶을 칠판 위에 그려오고 있는 김명희 동문의 개인전 '깊은 시간'이 열리는 갤러리 현대를 찾았다.



—미술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미술이 내 마음의 세계와 가까웠기 때문에 음악을 전공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다. 혼자 사색하고 작업하는 세계가 나와 더 잘 맞았다. 나와 맞는 방식이 분명한 편이었던 것 같다.

—한국에서 활동하다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시점은

1973년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동료 교사였던 김차섭(1943-2022) 선생과 유관순기념관 벽화작업을 함께하게 되면서 인연이 닿았다. 이후 선생께서 록펠러 펠로십 지원을 받아 뉴욕 프렛대학원 진학으로 뉴욕에 건너가셨고, 나 역시 이듬해 프렛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의 연을 맺었다.

—뉴욕에서 선후배 화가들과의 교류가 활발했고 도움도 많이 주었다는데

1982년에는 소호에 있는 로프트(loft)를 매입해 거처를 옮겼다. 백남준 작가가 바로 건너편에 살았고, 마찬가지로 근처에 사시던 김환기 선생의 부인인 김향안 여사가 우리 부부를 지지해줬다.

젊은 작가들의 작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강익중 작가의 첫 전시 때 작품을 구매하는 등 젊은 작가들을 만나면서 작품을 컬렉팅하고 있다.

뉴욕에도 알재단(AHL Foundation)이라고 재미동포 작가들을 지원하는 미술 재단이 있는데, 여기 매년 기부하면서 아티스트들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도 지원하고 있다.

—김차섭 동문과 동료로서 부부로서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1970년대 중반 시작된 뉴욕 생활은 녹록치 않았다. 처음에는 한국 신문사에서 일했고, 이후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교육을 받고 의류 매장을 직접 운영하며 경제적 기반을 다졌다.

1990년대 초, 강원도 춘천의 내평리로 이주하여 시골 폐교를 작업실로 개조했다. 이후 이곳에서 칠판을 매체로 한 작업을 본격화하며, 신화, 문명, 이주 등의 주제를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풀어냈다.

2023년, 김차섭 작가가 작고한 이듬해부터 김차섭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아 그의 작업 세계를 재조명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그의 유작을 정리하고 아카이빙하며 다양한 후속 작업을 이끌고 있다.

—뉴욕과 내평리 양쪽 작업실을 오가며 작업해온 경험은

작품을 준비하면서 큰 작품은 여기서 그리고, 작은 작품들은 뉴욕에서 그리곤 한다. 미국과 한국이 아닌 도시와 시골을 오가는 셈인데, 두 공간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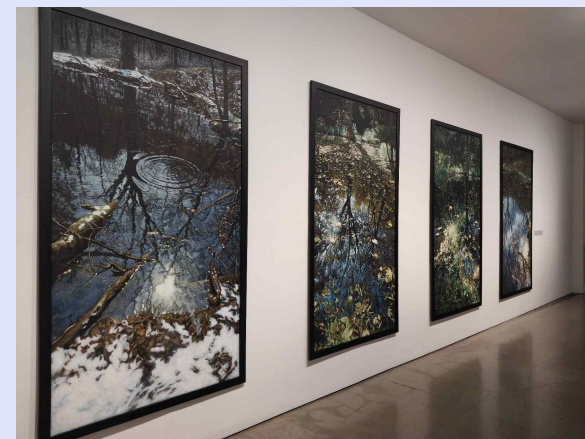
두 편안하게 느껴진다. 습관적으로 30년을 그렇게 살았더니, 한 군데 계속 사는 건 지루하겠단 싶기도 하다. 한국 작업실에는 세계지도가 있고, 뉴욕에는 한국지도가 있다. 서로 교차되는 것이다.



—이번 전시작품 중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를 모색한 점이 특색있는데

모니터를 처음 사용한 작품은 2000년도 작품인 '김치 담구는 날'이다. 당시 처음으로 평판 디스플레이(flat screen)가 시장에 출시됐는데, 그 전부터 모니터와 페인팅을 조화시키고 싶었기에, 소호의 애플 스토어에서 강의를 수강했다. 나는 디지털 미디어를 예술의 한 요소로 자연스럽게 수용하며, 변화보다는 '심화'에 가까운 실천을 통해 작업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칠판 회화에 모니터를 삽입하는 방식의 혼합 매체 작업으로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실험한다.

—그동안 기억에 남는 전시나 경험은



포라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1980년대, 테이트 뮤지엄에서 안젤름 키퍼가 폐교에서 한 작품만 가지고 전시를 했었다. 그 전시를 보고 한국도 사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1997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타슈켄트, 사마르칸트를 잇는 답사를 다니면서 디아스

—작가로 생활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폐교에 입주했을 때 버려진 칠판들을 겨울에는 깨진 유리창을 막는 데 사용했다가, 봄이 되자 우연히 "여기에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경험과 뉴욕에서 생활하며 의류 매장을 운영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당시에 생계가 어려워 한국 신문사에서 일했지만 맞지 않았고, 결국 패션을 공부한 뒤 뉴욕 메디슨 애비뉴에 의류 매장 '피놀라'를 열었다. 가게가 잘 되어 3년 만에 은행 빚을 모두 갚았다. 또한 김차섭 선생과 거의 24시간을 함께하며 뉴욕과 한국을 오가다 보니, 어떨 때는 지겹기도 했지만 그와 삶과 작업에 있어 많은 영향을 주고 받게 된 것도 기억에 남는다.

—동문과 동창회에 하고싶은 말은?

기억해줄 만한 작가가 되면 좋을 것 같다.

동문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시길 바란다. 저는 평생 한국과 뉴욕을 오가며 작업을 계속해왔고, 지금도 새로운 작업을 고민하고 있다. 후배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서로를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는 동문 사회가 되면 좋겠다. 저 역시 기억해줄 만한 작가로 남을 수 있도록 꾸준히 작업하겠다.

색유만개 권순형(49응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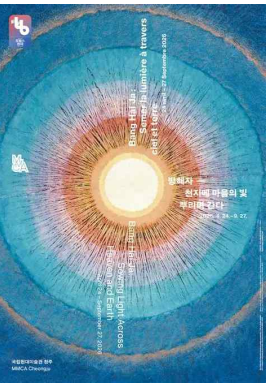
서울공예박물관이 한국 현대 도예 1세대 거장인 권순형(1929-2017) 동문의 기증 특별전 '색유만개'를 지난 5월 12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진행한다. 권동문은 전통 청자와 백자 중심의 도자 형식에서 벗어나 색을 입히는 유약인 '색유'를 활용해 도자에 회화적 표현을 도입한 한국 현대 도예의 선구자로 꼽힌다. 이번 전시는 2024~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공예박물관에 기증된 권동문의 컬렉션 가운데 대표 작품 130건과 아카이브 자료 50여건을 선별해 처음 공개하는 자리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는 디자이너에서 도예가로



전향한 초기 여정을, 2부는 유약 실험과 도자벽화 작업을 통해 도자의 영역을 확장한 과정을 조명한다. 3부에서는 1990년대 이후 색유 작업이 예술적·기술적 완성에 이른 시기의 작품 100여 건을 소개한다. 4부에서는 전시 도록, 리플릿, 영상자료, 일기 등 아카이브를 통해 예술가이자 교육자였던 권동문의 삶을 살핀다. 한편 모교 응용미술과에서 공부한 권동문은 미국 연수 이후 색유를 활용한 실험적 작업으로 도자의 새로운 조형 가능성을 제시했다.

천지에 마음의 빛 뿌리며 간다 방혜자(56회화)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서 지난 4월 24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열고 있는 방혜자(1937-2022) 동문의 '천지에 마음의 빛 뿌리며 간다'는 작가 타계 4년 만에 뒤늦게 열린 첫 대규모 회고전이다.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 전시에는 작품 67점과 아카이브 200여 점이 나왔다. 풍곡두센터 소장품 8점, 파리 시립 세르누치박물관 소장품 9점 등 절반 이상이 국내에 처음 공개된다. 방혜자는 1937년 고양군 능동아차산 아랫마을에서 7남매 중 가장 허약한 아이로 태어났다. 집 근처 개울가에서 햇빛이 물결 속 조약돌 위로 반짝이는 광경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 빛을 내 손으로 표현하고 싶다.' 6·25 전쟁 때 얻은 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요양차 찾아가던 수덕사에서 노스님에게 자연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전쟁과 병고를 거치면서 어둠을 밝히는 빛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졌다. 처음 관심을 가진 건 문학이었다. 학창 시절 그는 랭보와 보들레르에 빠진 문학소년였다. 경기여고 재학 시절 미술 선생님의 권유로 미술반에 들어간 것이 방혜자를 화가의 길로 이끌었다. 유영국과 김병기의 현대미술연구소에서 추상미술에 눈을 뒀고, 모교 졸업 후 1961년 국비유학생 1호로 프랑스에 건너갔다. 1968년부터 8년



간 한국에 돌아와 머물며 방혜자는 한국의 전통에 더 깊이 이끌렸다. 이 시기 그는 탁지(한지)에 폭 빠졌다. 이후 그는 동양의 종지와 먹, 서양의 아크릴릭 물감, 프랑스 남부 지방의 붉은 황토를 한 화면에 섞기 시작했다. 1996년작 '우주의 노래'가 그 결과물이다. 화면을 가득 메운 황토와 먹이 깊고 넓은 세계를 그려낸다. 작가는 생전 "땅과 하늘이 서로 연결된 것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방혜자는 국가, 장르, 종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이었다. 1967년 프랑스인과 결혼했고, 파리에서 프랑스인들에게 10년간 서예를 가르치기도 했다. 어린 시절 불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파리에서 가톨릭 세례를 받았다. 201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파리 샤르트르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공모에 선정됐다. 전시를 기획한 방초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는 "작품이 독자적이어서 특정 미술사조에 포함하기 어려웠고, 이 때문에 미술사 서술에서 빠지기 쉬웠다"고 말했다. 생애 절반 이상을 프랑스에서 보냈기에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세계가 인정하는 1세대 여성 추상화가를 뒤늦게나마 집중 조명한 가치 있는 전시다.

침묵과 열림의 대위(對位) 윤형근(47회화)·최인수(66조소)

윤형근(1928-2007), 최인수 동문의 2인전 '침묵과 열림의 대위(對位)'가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6월 18일까지 송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윤형근과 최인수는 물리적 공간인 동시에, 회화와 조각이라는 상이한 두 매체가 각각 '침묵'과 '열림'이라는 존재론적 양태를 통해 서로를 호출하고 응답하는 관계적 장을 구성한다. 윤동문은 회화를 통해 존재의 깊이 앞에서 멈추어 서게 되는 어떤 숭고한 평정의 상태를 제시하며, 의미 이전의 밀도와 마주하게 하는 하나의 공터를 열어 놓는다. 최동문은 재료가 지닌 시간성과 장소성이 드러나는 과정을 현전시키는 일에 초점을 두며 조각을 공간을 점유하는



덩어리로 보지 않고, 공간을 열어젖히고 활성화하는 터로 파악한다. 윤동문이 만들어 놓은 고요한 배경 위에서, 최동문의 조각은 더욱 또렷한 현존을 획득하며 우리는 정지와 생성, 침묵과 행위, 세계와 대지가 서로를 비추며 맞물리는 하나의 장면을 경험하게 된다. 한편 윤동문은 모교 회화를 전공하고 파리와 일본, 국내에서 다수의 전시를 했다. 최동문은 모교 조소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후 독일 국립 칼스루헤미술대학에서 수학했다. 최동문은 국내와 일본에서 다수의 전시를 열었으며 현재 모교 명예교수이다.

Deep Time 김명희(67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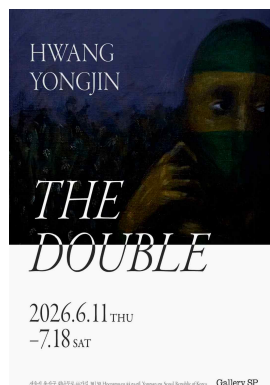
김명희 동문의 개인전 '깊은 시간 Deep Time'이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갤러리 현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반세기 넘게 이어온 김동문의 독보적인 회화 세계를 조명하는 회고전이다.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여성 미술가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온 김동문의 예술적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삶과 역사가 교차하는 그의 '깊은 시간'을 다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이다. 전시에는 1970년대 캔버스의 유화 작업, 1980년대 목탄드로잉, 1990년부터 시



작된 칠판화의 대표작 및 신작 등 총 50여 점이 공개됐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1976년부터 1978년까지 미국 프랫인스티튜트 대학원에서 수학하였다. 1970년대 여성 작가 그룹 '표현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약 15년간 뉴욕을 중심으로 작업하며 한국 작가들과 교류하고 이주 경험을 작업에 반영했다. 1990년 귀국 이후 강원도 춘천 내평리에 작업실을 두고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The Double 황용진(74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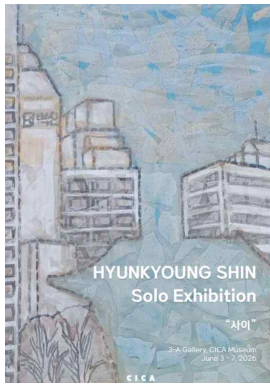
황용진 동문의 개인전 'The Double'이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는 7월 18일까지 갤러리SP에서 열린다. 황동문은 1980년대 민중미술과 아방가르드 형식 실험이 공존하던 시기에도 사회적 사건 자체보다 그 안에 놓인 인간의 내면과 심리에 주목하며 오랜 시간 인간의 내면에 대한 탐구를 회화의 중심에 두었다. 그의 초기 작업이 파편화된 인물들로 인간의 복합적인 심리를 드러냈다면 최근에는 보다 구체적인 인물형상과 줄무늬 표피를 통해 우리 존재의 양면성과 취약함에 주목한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사회적 사건과 그 속에 놓인 인간에



대한 황동문의 지속적인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전시 제목인 'The Double'은 인간 안에 공존하는 이중성과 분열을 가리키며 인간이 지닌 모순과 분열, 그리고 자기만의 타자성을 성찰하며 쉽게 끌어안을 수도 미워할 수도 없는 인간에 대한 통찰을 회화적으로 제시한다. 한편, 황동문은 모교 회화를 전공하고 모교 서양화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원 객원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대학 조형예술학과 명예교수로 재직중이다.

사이 신현경(74회화)

신현경 동문의 개인전 '사이'가 지난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CICA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사이'라는 주제로 회화·설치·아티스츠 북공동작업을 전시했다. 이번 전시에서 신동문은 동양화 벽화기법을 활용해 금은박 조각을 붙여 바탕을 만들고, 실수한 자국을 지우고 덧칠하는 과정을 통해 흔적을 드러냈다. 신동문은 모교 졸업 후 일상과 미술 사이를 오가며 작업을 이어왔다. 2024년 인사동에서 열린 전시 '점 하나, 이제 시작합니



다의 점 하나가 하나의 획으로 확장되며 신동문의 두 번째 여정 '사이'로 이어졌다. 한편, 신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했다. 이후 그는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MFA 청구전 '다시 쓰여진 나의 그림일기: 자기 치유적 과정으로서의 미술'을 통해 70여 점의 작업에 글을 엮었으며 귀국 후 서남갤러리에서 전시를 열며 활동을 이어갔다. 또한 다수의 워크숍 운영과 책 발간, 7회의 개인전 및 80여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북해(北海)로부터 이종목(76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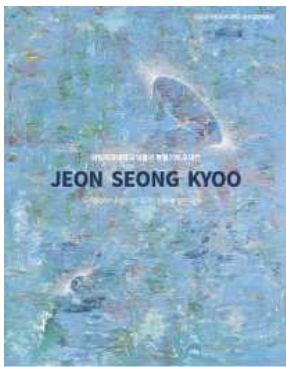
이종목 동문의 개인전 '북해(北海)로부터'가 지난 5월 27일부터 오는 6월 23일까지 UM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이동문이 오랜 시간 탐구해온 자연과 존재,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계를 '북해'라는 원형적 은유를 통해 새롭게 조명한다. 전시에는 완성된 대상을 재현하는 대신, 형태가 생성되기 직전의 진동과 공명, 생명의 기척을 담아낸 회화들이 소개된다. 최근 작업에서 이동문은 구체적 형상을 최소화하고, 먹과 물이 만들어내는 번짐과



응결, 선의 흐름과 흔적을 화면 전면에 드러낸다. '겨울 산', 'Inner Sight', 'Holy Paradox', '즉비', '신어구변' 등으로 이어져 온 그의 작업은 존재와 우주의 질서를 향한 하나의 질문을 지속적으로 변주해온 과정이다. '북해로부터'는 이동문 회화의 철학적 탐구와 조형적 성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로, 한국화의 전통 언어를 오늘날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한 작업 세계를 조망한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감춰진 통로 전성규(81회화)

목포대 교수 전성규 동문의 정년퇴임기념전 '감춰진 통로(Hidden Passage)'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1일, 오는 6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2차레로 나누어 목포대학교박물관 갤러리 뭉(Mum)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오랜 기간 후학 양성에 헌신해 온 전동문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자리이자, 회화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구해 온 작가의 예술 세계를 집약적으로 선보이는 자리이다. 전동문은 자연과학, 인문학, 신앙을 아우르며 생명과 존재의 본질을 탐구해 온 작가로, 전시 부제인 '감춰진 통로'는 우주 만물이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물질과 정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 존재한다는 작가의 인식을



반영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요소는 '옷(의복)'이라는 모티브다. "화면 속의 옷은 인간 환경의 총체적 시스템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알맹이가 비어 있는 껍질이라는 허구성을 지닌다. 모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전동문은 Doctor of Fine Art. RMIT University에서 미술학 박사 과정을 졸업한 후 국립목포대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또한 2019 올해의 작가상 수상, 2019 국회의장상 수상, 201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2011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 수상,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 선정,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작가 선정된 바 있다.

안영나 퇴임기념전 안영나(80동양)

안영나 동문의 퇴임기념전이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세종뮤지엄갤러리에서 열린다. 안동문은 덕성여중 시절 사군자를 익힌 이후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하며 검재 정선, 표암 강세황, 추사 김정희, 우봉 조희룡 등 조선시대 문인화 전통과 청전 이상범, 소정 변관식, 심산 노수현으로 이어지는 한국 근대미술을 깊이 탐구해 왔다. 이번 전시는 안동문이 오랜 시간 천착해 온 'Flower No Flower(꽃 아닌 꽃)' 연작을 중심으로, 문인화의 사의(寫意)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세계를 선보인다. 안동문은 전통 수묵의 필법에 드



립핑 기법과 자유로운 붓질을 접목해 꽃의 외형이 아닌 생명의 기운과 감각의 흐름을 화면에 담아낸다. 미술평론가 서길현은 "안영나의 꽃은 꽃의 재현이 아니라 꽃의 감각을 현현시키는 작업"이라며 "비움과 스밈의 미학을 통해 가장 한국적인 조형언어를 구축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번 퇴임기념전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안동문의 예술세계를 조망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안동문은 모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30여 회 이상의 개인전 및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현재 서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후원광고

세종뮤지엄갤러리 기획초대전

Flower No Flower
-비화비화(非花飛花)
‘비움과 스밈’

Ahn Young Na
안영나

2026.6.24 Wed - 7.5 Sun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대양AI센터 B2
T. 02.3408.4162
전시운영시간 | AM 10:00 - PM 5:00

강화, 강화를 날다 이강화(81회화)

세종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강화 동문이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인천 강화군에 새롭게 문을 여는 <갤러리Pal_강화>의 개관기념 초대전 '강화, 강화를 날다'를 개최한다. 전시 첫날인 지난 5월 15일 오후 3시에는 오프닝 행사도 진행됐다. 이번 전시는 강화도 장화리의



아름다운 낙조를 배경으로 조성된 <갤러리Pal_강화>의 첫 전시로 마련됐다. 한국 현대미술계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강화 교수의 작품 세계를 통해 자연과 예술, 공간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시 제목인 '강화,

강화를 날다'는 이동문의 이름과 지명인 '강화'를 중의적으로 활용한 표현으로, 강화도의 자연이 주는 생명력과 예술적 영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작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갤러리Pal은 기존 압구정 전시 공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을 강화 장화리에 조성했다. 특히 전시장은 일몰 명소로 알려진 장화리의 풍경과 어우러져 관람객들이 자연 속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관람객들은 전시장 내 휴식 공간에서 강화도의 자연을 만끽하는 동시에 캔버스 위에 담긴 또 다른 자연 풍경을 마주하며 색다른 감상 경험을 할 수 있다. 갤러리 측은 이번 전시가 강화의 역사성과 자연미를 예술로 재해석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강화도가 예술의 섬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 전시장 바로 위에 위치한 <이강화 아뜰리에>도 함께 방문할 수 있어 작가의 작업 공간과 작품 세계를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 국립 VIII대학 조형예술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세종대 예체능대학 회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동안 48회의 개인전과 500여 회 이상의 아트페어 및 단체전에 참여하며 국내외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는 본회와 MOU를 맺은 갤러리Pal이 압구정에서의 활동을 넘어,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장화리에 새로운 예술공간을 마련하고 선보이는 첫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관람객들은 전시장 속 휴식공간에서 자연을 만끽함과 동시에 캔버스 위에 펼쳐진 또다른 자연을 마주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강화라는 공간이 지닌 역사성과 자연미를 담아낸 작품들은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강화도가 예술의 섬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갤러리 관장은 전한다. 특히, 갤러리 바로 위에 위치한 <이강화 아뜰리에>를 방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갤러리는 금토일(10시—19시)에만 운영된다.

갤러리Pal_강화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514-25 문의: 0102217 3210



후원광고

내 안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너

김남표
이강화
정상곤

2026.6.17(수)-7.9(목)

La
Conscience
du Paysage

GALLERY Pal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64길 21 우리빌딩 1F, B1F (압구정역)
11:00 - 18:00 (일, 월 휴관)

풍경의 의식

가족의 품 박세현(82회화)

박세현 동문의 개인전 '가족의 품'이 지난 5월 9일부터 29일까지 갤러리 뽕띠 빨레 영월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김보연아트센터와 99.1MGz 영월FM이 공동 주최하고, 갤러리 뽕띠팔레 영월이 주관하며 예술카페 별빛마루가 협찬, 영월문화관광재단이 후원했다. 전시 제목인 '가족의 품'은 생명의 근원이자 가장 본질적인 안식처인 가족의 의미를 화폭에 담아낸 작품들로 구성됐다. 특히 소, 향아리, 집 등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간과 자연, 공동체, 삶의 원형을 묵직한



서사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주최 측은 “이번 초대전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와 삶의 근원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전시가 될 것”이라며 “예술을 통해 위로와 성찰의 시간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중앙미술대전 우수상을 수상했다. 중국의 베이징중의과대학에서 수학하며 의료봉사와 그림 창작을 병행한 바 있다.

축적된 일상 이계원(84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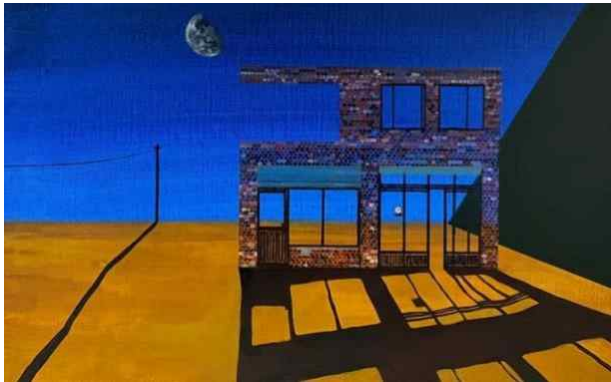
이계원 동문의 개인전 '축적된 일상'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서울 용산구 후암동 갤러리 U.H.M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이동문이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천착해 온 대표 연작 「Allotropism(同質異形)-첩첩(疊疊)」의 연장선에 있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강렬한 색면과 정교하게 중첩된 기하학적 구조는 단순한 추상회화를 넘어 인간의 삶과 시간, 그리고 일상이 지닌 본질적 가치를 사유하게 만들었다. 이동문은 1999년 뉴욕 유학 시절 뉴욕의 다인종 다



문화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다름을 유지하며 한 사회 속의 일상을 조화롭게 보내는 현상에 주목하며 작품의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 또한 일상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포착한 작품들이 선보여졌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미국 롱아일랜드 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모교 미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천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서양화전공 교수를 역임했다.

푸른 골목의 안쪽 김정아(90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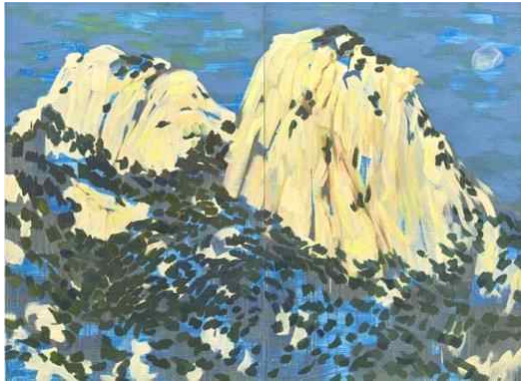
김정아 동문의 개인전 '푸른 골목의 안쪽'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토포하우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1990년대 이후 그가 지속해온 '주변부의 풍경'에 대한 탐구를 집약한다. 거제에서 보낸 25년의 시간 속에서 김동문은 해양 쓰레기를 수집·분류하며 인간과 환경, 그리고 소외의 문제를 꾸준히 사유해왔다. 화면에는 3차원적 환영과 평면적 요소가 교차하며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낯선 감각을 만들어낸다. 최근 등장하는 '요정'과 '접시'의 이미지는 자본 중심 사회 속에서 인간성과 연민을 회복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상징한다. 버려



진 사물과 풍경을 통해 인간의 상처를 응시해온 이번 전시는, 익명성과 속도 속에 잊힌 존재들을 다시 연결하는 하나의 제의적 예술로 다가온다. Opening Reception은 5월 20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에서 판화를 전공했다.

표석 정직성(95서양)

정직성 동문의 개인전 '표석'이 지난 5월 6일부터 6월 6일까지 페이지룸8에서 열렸다. 정동문의 작업은 정신적, 물리적 지형과 함께 공명하며 추상회화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개인의 역사와 숭고를 다룬 신작 30여 점이 소개됐다. 페이지룸8에서 열리는 정직성의 이번 전시 '표석'은 그의 이름을 알린 시리즈작 '연립주택'을 작품 '붉은 집'에 담아 소화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 전시에는 35kg에 달하는 시멘트 표석 3점이 등장한다. 이사와 일상 그리고 일련의 정서를 형성하고 있는 지금, 그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걸 보니 정직성의 작업은 그의 정신적, 물리적 지형과 함께한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조현화랑, 김종영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2020년 종근당 예술지상에 선정되었다. 모교 및 서울여자대학교 등에서 강사로 출강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해운(解輪)의 꿈 김은형(96동양)

김은형 동문의 개인전 '해운(解輪)의 꿈'이 지난 5월 30일부터 오는 6월 27일까지 H-flux Gallery에서 열린다. 김동문은 오랜 시간 글과 그림을 결합하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초기에는 자동기술법에 가까운 방식으로 무의식적이고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그렸고 이후에는 음악과 공연예술의 장면들을 화면 안으로 옮겼다. 최근에는 직접 쓴 시와 짧은 문장을 다시 이미지로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와 시각 사이를 순환하는 작업 방식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전시



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강령술, 연금술, 치유, 환생이라는 네 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한편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한 김동문은 국내외 주요 레지던시와 공모 프로그램에 선정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2008년 뉴욕 AHL Foundation Visual Arts Award를 수상했으며, 2012년 OCI미술관 Young Creatives 선정작가, 2013년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10인에 이름을 올렸다. 2024년에는 전남 신안의 '소금 같은 예술' 레지던시에 참여해 작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수도꼭지 연대기 이은경(13동양)

이은경 동문의 개인전 '수도꼭지 연대기'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OCI미술관에서 열렸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마주한 불화와 감정의 균열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 이동문은 억눌린 감정이 한순간 폭발하는 장면과 그 이후의 흐름을 다양한 매체로 풀어냈다. 뒤틀리고 과장된 신체 표현을 통해 자책과 분노, 수치심과 억울함 같은 복합적인 감정을 시각화한, 거친 필선의 드로잉과 입체 조각, 키네틱 작업은 감정의 진동과 긴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전시는 단순히 고통을 드러내는 데 머물지 않고, 상처를 드러낸 존재들이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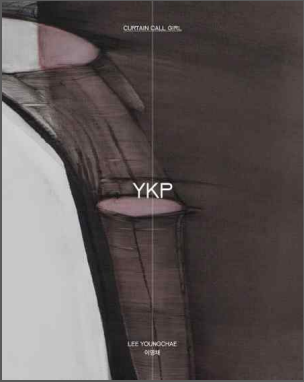


로를 알아보고 연대하는 순간을 함께 담아냈다. 그는 눈물과 웃음, 유머와 위트가 공존하는 장면 속에서 현실을 견디는 인간의 힘을 이야기했다. 특히 작품 곳곳에는 서로를 보듬으며 작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인물들이 등장해 깊은 공감을 이끌었다. 이번 전시는 감정을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마주하는 과정이 어떻게 또 다른 위로와 연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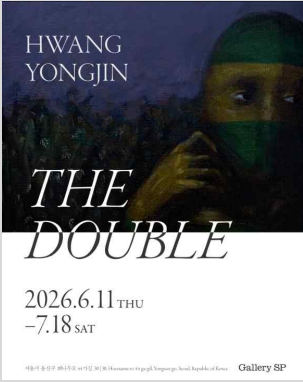
6월의 전시



화가의 인문학
고영훈(90동양)
6.15-7.5
갤러리 서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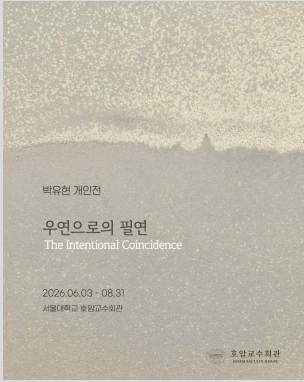
Curtain Call Girl
이영채(23줄 서양)
6.12-30
YK PRES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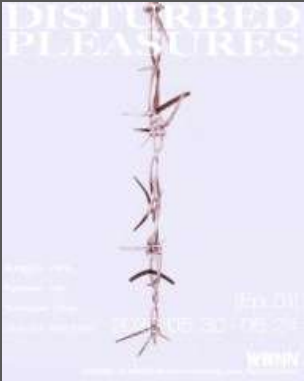
The Double
황용진(74회화)
6.11-7.18
갤러리SP



Before It Becomes a Scene
이근민(01서양)
6.10-7.15
PKM갤러리



우연으로의 필연
박유현(17서양)
6.3-8.30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Disturbed Pleasure
최수련(석17줄 서양)
5.30-6/24
WW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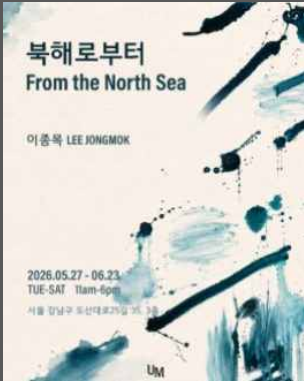
해운의 꿈
김은형(96동양)
5.30-6.27
H-flux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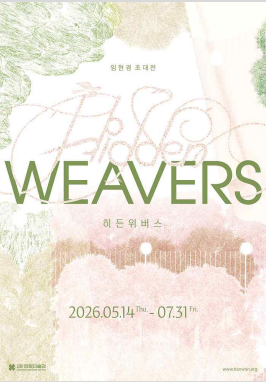
장발(루도비코)전
장발(교원)
5.27-9.11
일송기념도서관



위장된 시선
최나무(01줄 서양)
5.27-6.26
지소갤러리



북해(北海)로부터
이종묵(76동양)
5.27-6.23
UM갤러리



히든위버스
임현경(01동양)
5.14-7.31
한원미술관



강화, 강화를 날다
이강화(81회화)
5.14-8.30
갤러리PaL_강화



색유만개
권순형(49응미)
5.12-8.2
서울공예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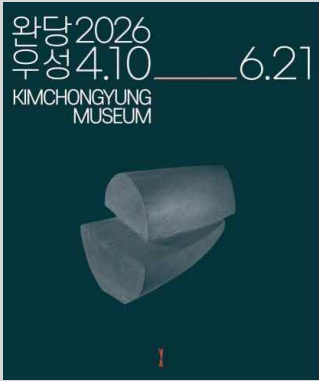
Hyper Scape
임상빈(95서양)
5.7-7.4
메타갤러리 라루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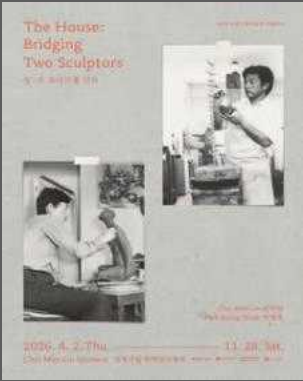
정원일과 그리기
백순실(70회화)
5.1-10.31
블루메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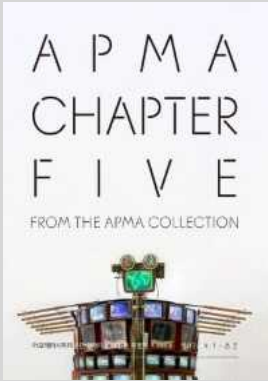
칼로 새겨 기억하겠습니다
이성도(74조소)
4.14-8.1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완당과 우성 I
김종영(교원)
4.10-6.21
김종영미술관



집:두 조각가를 잇다
최만린(54조소)
4.2-11.28
최만린미술관



APMA, CHAPTER FIVE
양혜규(90조소) 외
4.1-8.2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최종태의 질문-아름다움의 발견
최종태(54조소)
4.1-7.12
최종태미술관